K물류 위상 높인 'CJ대한통운', 우즈벡 초대형 사업 수주

화물 총 무게만 약 8000톤
24시간 기상관측 체계 구축
유압식 모듈 트레일러 투입

CJ대한통운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초대형 프로젝트 물류를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K-물류'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프로젝트 물류'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설치, 생산시설물 건설 등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중량물을 현장 일정에 맞춰 운송, 공급하는 물류를 말한다.

CJ대한통운은 중동지역 자회사 CJ ICM이 우즈베키스탄 수르칸다리야 남부지역에 건설하는 천연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 물류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CJ ICM은 중국을 비롯해 벨기에,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에서 개별 기자재를 선적해 해상운송, 환적, 통관, 하역, 내륙운송 등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CJ대한통운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초대형 프로젝트 물류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이 앞서 진행한 프로젝트 물류 장면.

운송목록에는 무게 500톤(t) 이상의 초중량물이 포함돼 있으며 모든 운송화물의 총 무게는 약 8000t에 이른다. 이는 성인 한 명의 몸무게를 70kg으로 가정할 경우 약 11만 명과 맞먹는 무게다.

각 국가에서 우즈벡 건설지역까지 해상과 내륙을 통해 운송되는 1회 이동거리는 2만 여㎞에 달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중량물 운송 전문인력과 화물선, 운송차량, 유압식 모듈 트레일러 등 대규모의 인력과 물류장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초중량물 운송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흔들림이 커 높은 물류설계기술과 경험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프로젝트다. CJ ICM은 해상운송시태풍, 폭우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24시간 기상관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대안경로 운행, 대체 장비 투입 등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물류를 수행한다.

내륙운송은 더욱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CJ ICM은 500t 이상의 무게를 견디며 운송하기 위해 유압식 모듈 트레일러(Hydraulic Modular Trailer)를 투입한다. 화물의 하중 산출, 고박 위치 선정, 특수 받침목 제작 등 정교한 무게 분산 작업을 진행한다. 또 도로 포장상태와 곡선, 고도변화 등에 민감한 만큼 속도는 시속 20㎞ 안팎으로 유지한다.

또 기자재의 무게, 높이, 폭 등을 고려해 운송 중 발생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빌 워크(Civil Work)' 작업도 병행한다.

대부분 설계하중이 50t 미만인 일반 다리를 통과하기 위해 사전에 교량을 철거하고 도로 위 전선, 신호등, 표지판 등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한다. 또 뛰어난 정부기관 대응능력과 각 국가별 법규, 정책, 종교,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우즈벡 천연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 물류를 기반으로 초중량물 운송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CJ ICM은 물류설계기술, 현지 인적·물적네트워크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동·중앙아시아의중량물 운송 분야 1위 기업의 명성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며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수준 높은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계 시장에 'K-물류'의 위상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매출 1000억·기업1000개사 육성 목표"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취임
"정책 선택과 집중 필요한 시기
검증 거친 이노비즈 중심에 둬야"

"'제조혁신 선도 이노비즈, 제조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이노비즈 기업이 제조 중소기업 정책의 실행 중심이자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이노비즈협회 임병훈 신임 회장(**사진**)이 24일 취임을 하면서 밝힌 포부다.

임병훈 회장은 이날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업종별·지역특화별 산업 기반 가치사슬 클러스터를 구축, 이노비즈기업 간 제조 빅데이터를 공유한 실시간 생산 협업체계 등을 통해 매출 1000억원 기업 1000개사 육성, 이노비즈 기업내 종사자 100만명 달성에 앞장서겠다"면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이끈 이노비즈 제도의 20년을 맞이해 새로운 20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임 회장은 조선대 정밀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에 텔스타홈멜을 설립했다. 텔스타홈멜은 현재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자동화 장비, 정밀 측정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3년간 이노비즈협회를 이끌게 된 임 회장은 AI 전환, 상생 협업,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한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중심, 이노비즈'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조혁신 선도 이노비즈 ▲이노비즈 상생 협업 추진 ▲이노비즈 성장역량 강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수출 패러다임 전환 선도기관이라는 '스마트(SMART) 5대 전략·10대 추진과제'도 함께 밝혔다.

임 회장은 "수요자 중심 시대에는 시장이 가까운 곳에 공장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공장을 수출하는 글로벌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공장화를 통한 스마트 팩토리가 앞으로 그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이 이끌게 된 이노비즈협회는 회원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넘어 스마트 비즈니스를 통해 제조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기업 집중 육성, 제조업의 제조서비스업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기업간 협업을 통한 공동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기업 간 상생 협업 촉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도 지원한다.

임 회장은 "기업들은 앞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ESG경영을 해야한다"며 "이노비즈기업이 스케일업을 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노비즈 제도 개편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및 재배치 지원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 ▲이노비즈 글로벌화 모델 확산 ▲기술 기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임 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산업정책을 통해 대기업을 키웠다. 중소기업정책을 통해선 벤처와 이노비즈를 탄생시켰다. 이젠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중심엔 이노비즈(기술혁신)를 둬야한다"며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가 위기에도 강한 만큼 이노비즈 기업들은 이미 충분한 검증을 거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쌍용양회, 쌍용C&E로 사명변경 '새출발'

종합환경기업 도약

쌍용양회가 쌍용C&E로 간판을 바꾸고 '종합환경기업'으로 도약한다.

쌍용양회는 시멘트 제조업을 의미하는 '양회공업'을 떼고 환경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장 의지를 반영해 '쌍용C&E'로 사명을 변경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사명은 오는 3월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공식 선포한다.

쌍용C&E는 시멘트 대표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이어온 기업의 정체성인 '쌍용'은 유지하면서 'Cement & Environment'의 앞글자인 C&E를 더했다. 여기에는 미래 핵심가치인 환경분야로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종합환경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쌍용양회 홍사승 회장은 "쌍용양회가 지난 60여년 동안 시멘트산업을 선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시멘트사업을 기반으로 순환자원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환경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양회는 최근 5년 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친환경 생산설비 구축 등에 투자해 오고 있다. 또 지난 연말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다수의 환경 관련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초에는 ESG경영을 선포하고 탈석탄 등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SK매직, 매출 1조 돌파 이어 신용등급 ⬆

한신평, A+로 한 단계 '상향'
전체적 사업 프로파일 향상

SK매직이 지난해 매출 1조원을 거둔데 이어 신용등급도 올랐다.

24일 SK매직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SK매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0(긍정적)에서 A+(안정적)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한신평은 이번 등급전망 변경에서 ▲렌탈 계정기반 확대를 통한 사업안정성 강화 ▲렌탈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세 지속 ▲현금창출력에 기반한 우수한 재무지표를 유지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신평은 수익성과 커버리지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가운데 렌탈 시장의 성장성, 동사 외형 및 렌탈 계정의 우수한 성장세, 시장내 2위권의 안정적인 시장지위 구축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 프로파일이 향상 된 점을 신용등급 조정 사유로 밝혔다.

SK매직 관계자는 "최근 신용등급 상향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력사업인 렌탈사업의 성장세와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탄소중립' 준비한 中企, 20% 미만 불과"

80% 대응 필요성 인식

친환경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대응 준비가 된 중소·벤처기업은 10곳 중 2곳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서도 10곳 중 8곳은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319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동향조사를 실시해 24일 내놓은 'KOSME 이슈 포커스'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6.1%는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준비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에 대해선 80.6%의 기업이 '공감'을 표했다.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인식하면서도 실제 준비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 화공, 금속의 경우 '준비가 되어(있거나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7%, 9.5%에 그쳐 전체 평균 대비 탄소중립 준비 수준이 저조한 모습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방안으로는 '저탄소·친환경 기술·제품 사업화'(4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승호 기자